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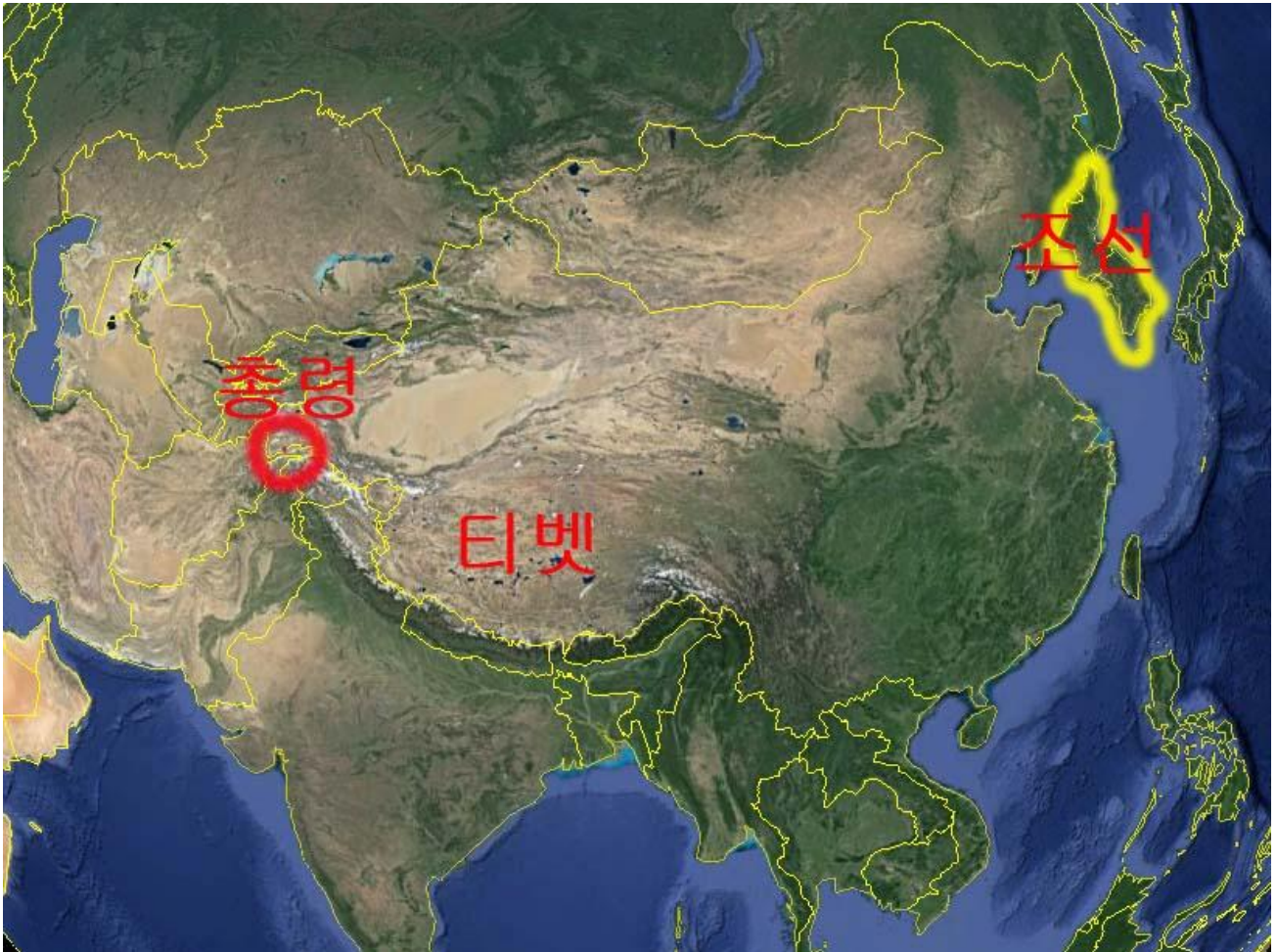
5-2. 총령과 사군육진의 위치는 조작되었다..

1. 총령이란?

葱嶺(총령) <불교사전>

지금의 파미르 고원에 뻗어 있는 큰 산맥계(山脈系). 남쪽으로는 북인도에 닿았고, 동서로는 힌두 쿠쉬산맥과 카라코람산맥의 두 갈래로 나뉘었으며, 북으로 뻗은 줄기는 서역이라고 하던 지방을 동서로 나누면서 천산산맥과 연하였음. 평균 높이 5000m의 고지(高地). 아시아 대륙 여러 산맥의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옛날부터 세계의 지붕이라 함.

현재의 세계사는 파미르 고원을 총령이라고 하며 옆에는 북미에 있었던 티벳이 위치합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총령(葱嶺)을 찾아보면 다른 곳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 / 청 강희(康熙) 45년) 3월 25일(계미) 3번째기사

황해도 수안의 유학 김처균 등이 본군에 신설한 네 진을 변통할 것을 청하다

황해도(黃海道) 수안(遂安)의 유학(幼學) 김처균(金處均) 등 9인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본군(本郡)에 신설(新設)한 문산(文山)·총령(葱嶺)·위라(位羅)·선적(善積) 네 진(鎭)이 관방(關防)하는 데에 이익됨이 없고 손해만 한 군(郡)에 널리 퍼진 형편이니, 변통(變通)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黃海道遂安幼學金處均等九人, 疏陳本郡新設文山、葱嶺、位羅、善積四鎭之無益於關防, 害遍於一郡之狀, 請其變通, 答曰: “令廟堂稟處。”

총령(葱嶺)이라는 지명이 동국조선의 황해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록에 다수가 있습니다.

2. 총령은 황해도에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총령(葱嶺)이란 지명이 황해도에 있었다는 기록들이 다수가 존재하며 대조선COREA의 황해도 북쪽지역은 숙종대왕시절에 청나라의 남침에 대비하여 4군을 설치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숙종 31권, 23년(1697 정축 / 청 강희(康熙) 36년) 6월 3일(신해) 1번째기사

사군 개척 등에 관하여 영의정 유상운이 아뢰다

…중략… 강계 한 구역은 땅의 면적이 이미 넓으며, 서쪽으로 의주와 통하는데 험하고 좁은 길이 천 리나 되고, 북쪽으로는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에 닿는데 중간에는 **총령(葱嶺)**이 막혀 있으며, 오직 한 면으로 남쪽의 적유령(狄踰嶺)만 지키면 실로 사방이 모두 막힌 험준한 곳으로, 촉중(蜀中)의 동서천(東西川)과 같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북쪽은 한 줄기의 띠와 같은 좁은 시냇물이 막혀 있는데, 지금 또 **사군(四郡)**을 개척한다면 특별히 험한 곳에 방비를 설치하는 뜻이 아니니, 이것이 신이 남구만과 다른 점입니다. …생략…

江界一區，幅員既廣，西通義州，鳥道千里，北接三、甲，中隔**葱嶺**，獨以一面，南守狄踰嶺，實四塞之國，有若蜀中之東西川矣。第其北則只隔一衣帶水，今又開拓四郡，殊非設險之意。此臣所以異於九萬，…

숙종 50권, 37년(1711 신묘 / 청 강희(康熙) 50년) 5월 2일(경인) 2번째기사

해서의 총령·신당·광산의 3진을 혁파하다

해서(海西)의 **총령(葱嶺)**·신당(新塘)·광산(光山)의 3진(三鎭)을 혁파하였는데, 도신(道臣)과 순무사(巡撫使)의 말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3진의 토졸(土卒)들은 혁파함을 원하지 않아서 심지어는 격고(擊鼓)까지 하면서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었다.

罷海西**葱嶺**、新塘、光山三鎭。從道臣及巡撫使之言也。三鎭士卒，不願革罷，至有擊鼓呼冤者。

총령(葱嶺)이란 지명은 함길도(咸吉道)와 인접한 황해도(黃海道) 북서지역에 있었으며 숙종실록 이전에 총령이란 지명은 황해도 북서의 총령만이 아닌 더 넓은지역을 의미하는 총령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조 191권, 38년(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9월 9일(경진) 3번째기사

예빈사에서 고 위관(高委官)의 차인 섭(葉)·박(朴) 등 두 명과 중국의 중이 들어왔다고 보고하다

…중략…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비망기(備忘記)로 우부승지 정혹에게 전교하기를, “압록강이 **총령(葱嶺)**이 아니고 한양(漢陽)이 기원(祇園)이 아닌데 동국(東國)이 어찌 인도(印度)이겠는가. 장삼을 입고 머리를 깎은 중이 갑자기 자비의 배를 타고 순조롭게 왔으니,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가 본래의 면목을 알아 육근(六根)을 단절하고 진연(塵緣)을 초월하여서 묘각(妙覺)·등각(等覺)이 정녕 어느날 있을 것인가. 태감(太監)이 갔는데, 또 이 중이 어느 곳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자세히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傳曰：“知。”以備忘 傳于右副承旨鄭穀 曰：“鴨綠非**葱嶺**；漢陽非祇園，東國豈是印度？方袍髡首者，忽承慈航，惠然來斯，何爲其然耶？渠能識得本來面目，斷六根、超塵緣，妙覺、等覺，定在何日？太監過矣，且此僧來從何處，以何事來乎？詳問以啓。”

총령(葱嶺)은 동국조선에서 지대가 높은 고원지대(高原地帶)이기에 자국의 대강(大江)인 압록강(鴨綠江)과 고원(高原)인 총령(葱嶺)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들을 보면 총령은 동국조선COREA의 북서지역에 있었으며 현재의 파미르 고원을 총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대륙에 있었던 동국조선COREA의 국민들이 익히 아는 지명이기에 세계사조작을 위하여 티벳과 함께 이동되어 파미르 고원을 총령이라고 하게 된 것이겠습니다.

파미르를 총령으로 만들게 되면 동국조선의 강역은 현 중국땅에 위치하게 되며 대한민국이 현재의 총령인 파미르고원을 황해도의 총령으로 인식하면서 역사를 만들다 보면 대륙의 중공과는 필연적으로 마찰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현중공의 강역 중 KOREA에 권리가 있는 영토는 찾는 것이 순리이나 모든 땅을 KOREA의 영토였다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지명조작을 바로잡고 볼 일입니다, 그래야 바른 역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동국조선의 총령은 무엇을 의미하나

총령의 위치는 동국조선의 위치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중요지명이기도 합니다.

성종 134권,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0월 17일(무오) 1번째기사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상언(上言)하기를,

중략... 사해(四海)의 밖으로 서역(西域)은 총령(葱嶺)과 사막(沙漠)이 약 3만 리나 되며, 북쪽은 사막(沙漠) 불모(不毛)의 땅이어서 황막(荒漠)하기 끝이 없고, 동이(東夷)는 일본으로써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며, 남만(南蠻)은 점성(占城)과 진랍(真臘) 땅으로서 계동(溪洞)과 열병(熱病)이 심하여 중국과는 옛부터 통교가 없는 곳이며... 생략

그럼 총령이 현재의 위치일 때 서역으로 총령과 사막이 3만리 가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파미르에서 서쪽으로 아프리카 끝까지 9200km(2만3천리가량)정도로 실록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揆園史話(규원사화)는 숙종 2년(1675년)에 북애(北崖)노인이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고려 말의 이명(李 著)이 지은 <<진역유기 震域遺記>>를 중심으로 저술한 역사책으로 만설편을 보면 동국조선의 강역에 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규원사화 만설(漫說)편

" 무릇 조선의 땅은 북으로는 대항(大荒)과 연결되어 있으니 곧 얼어붙은 하늘과 빙판 같은 땅이 우리의 퇴로를 끊고 있고, 서쪽으로는 몽고와 접하니 만리에 뻗친 사막이 우리의 왼쪽으로 뻗은 팔뚝을 끊고 있으며, 서남으로는 한나라 땅과 인접하여 있으나 태산의 험준함이나 장강의 큰 물줄기 같은 경계가 없기에 곧 그 형세가 나아가 공격하기는 쉬우나 지켜 방어하기는 어려우며, 동남으로는 큰 바다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땅이다. "

余嘗論之, 強國之要, 有三 중에서

夫, 朝鮮(之)地, 北連大荒, 則凍天水地, 斷我後退之路; 西接蒙古, 而萬里流沙, 斷我左展之臂; 西南隣漢土, 而無泰岳峻峙. 長江大河之限, 則其勢易於進攻, 難於防守; 東南阻大海, 而無前進一步之土.

실록에 조선은 서쪽으로 총령과 사막이 삼만리라고 했고 규원사화는 서쪽으로 몽고사막이 있다고 했으며 동국조선의 연행기록들에는 압록강을 지나 요동반도부터 모래사막이 심해진다고 했으므로 동국조선의 총령은 요동의 동쪽일 것이며 동국조선에는 총령이라는 지명도 있지만 "총령과 사막이 삼만리"라고 할때의 총령은 북미북서지역의 거대한 고원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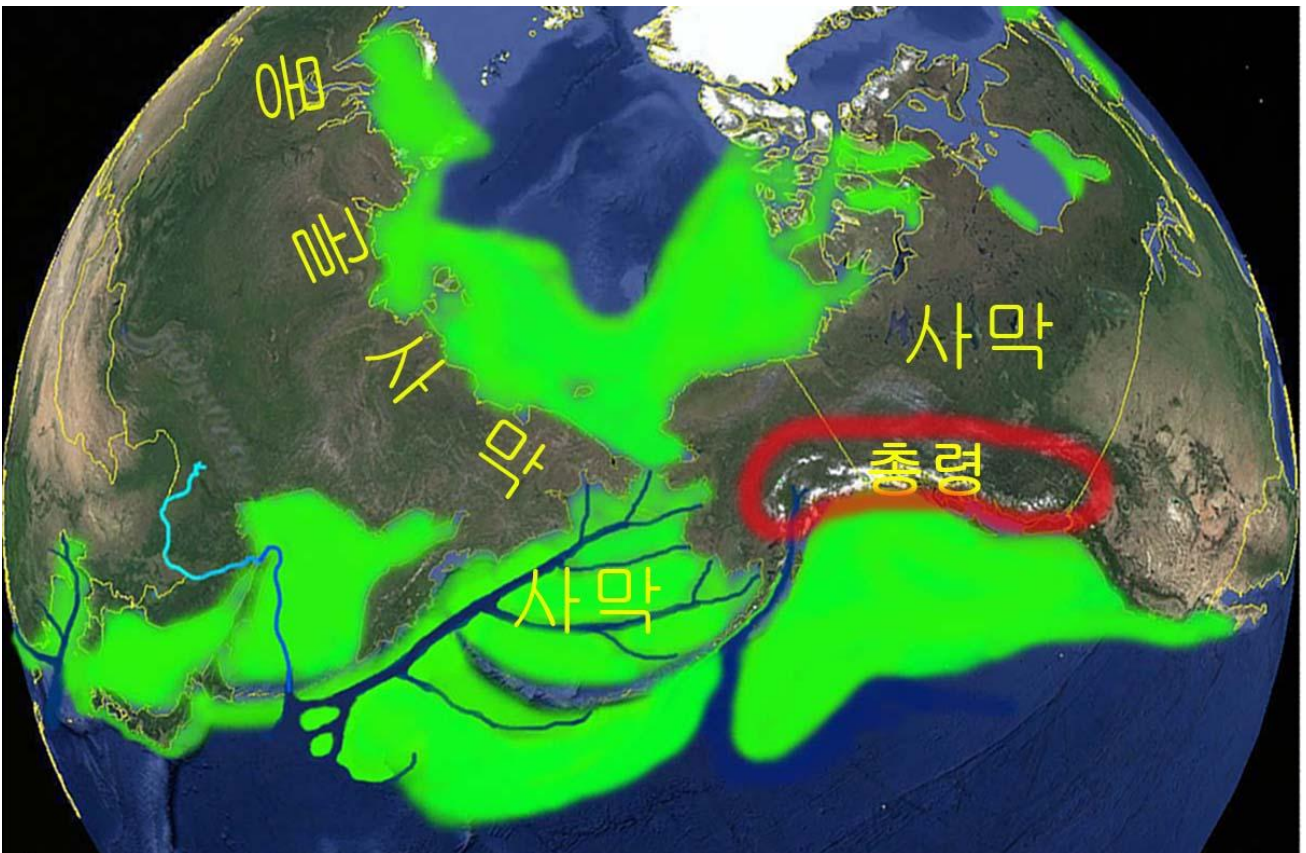
4. 총령은 북미 북서지역이다.

16세기 지도들을 보면 파미르 서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사막(붉은색) 표시가 별로 없습니다.. 비해서 북미 북서지역부터 서쪽으로 사막들이 계속 있으며 (2)사하와 (3)타타리아도 사막지역이므로 “총령과 사막”의 사막은 (4)요동부터 (3)타타리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총령은 산들이 밀집된 5번지역인 것입니다.



1531 Orontius Fineus <http://www.loc.gov/rr/earth/2006630228/>

16세기 지형을 현지형에 그려서 사막들을 표시해보고 총령의 위치를 찾아보면



동국조선의 강역은 “서역으로 총령과 사막이 삼만리”라고 할때의 총령은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의 장백산을 포함한 아래로 해발3000~6000m의 고원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5. 4군 6진의 위치는 조작되었다.

4군6진(四郡六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세종대왕시기 조선의 북쪽국경지역에 설치했다는 **4군6진(四郡六鎭)**은 조선왕조실록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4군6진(四郡六鎭) 조선 초기에 개척한 서북면(평안도)의 4군과 동북면(함경도)의 6진을 일컫는 말. 4군은 압록강 상류인 여연(閔延)·자성(慈城)·무창(武昌)·우예(虞芮), 6진은 두만강 하류 남안에 설치한 종성(鐘城)·운성(穩城)·회령(會寧)·경원(慶源)·경흥(慶興)·부령(富寧)이다. <브리टे니커>



현재 대한민국의 국사에서 4군6진을 보면 대한민국이 있는 조선반도의 북쪽에 평안도와 함길도에 사군(四郡)과 육진(六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현재의 국사와 다르게 세종대왕이 4군6진을 함길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세종 75권, 18년(1436 병진 / 명 정통(正統) 1년) 10월 6일(무진) 5번째기사

… 함길도의 연변 4군은 이미 수비가 있고, 도내의 여연·자성(慈城)·강계(江界) 등지에도 수비와 방어기 또한 튼튼하니, 저들이 반드시 허술한 틈을 타서 의주 등지에 뛰어들어 와서 그곳의 방비 없는 데를 습격할런지 이것이 진실로 의심스럽다…

… 咸吉道沿邊四郡, 已有守備, 道內閔延、慈城、江界等處守禦亦固, 彼必乘虛突入義州等處, 掩其不備, 此固可疑。

국사학계에서는 여연·자성(慈城)을 4군이라고 하지만 실록에는 4군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종 76권, 19년(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1월 4일(갑오) 3번째기사

경상·전라·충청·강원 네 도(道)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고향을 떠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것은 비록 사람의 상정이지만, 한나라 이래로 가끔 내지의 백성을 옮기어 변방 지대를 채운 일이 있다. 지금 함길도에 사군(四郡)을 신설하고 용성과 길주의 백성을 옮기어 채웠으므로, 용성과 길주는 풀빛이 들에 가득하니 저 사람들로서 이 길을 경유하는 자가 어떻게 보겠는가….

○傳旨慶尙、全羅、忠淸、江原四(遷) [道] 監司:

安土重遷, 雖人之常情, 自漢以來, 往往徙內地之民, 以實塞下. 今咸吉道新設四郡, 徙龍城、吉州之民以實之, 龍城、吉州則莽蒼滿野, 彼人之經由此道者, 視爲何如?

세종 97권,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7월 22일(경진) 2번째기사

함길도의 감련관(監鍊官)이 아뢰기를,

“화포(火炮)를 쏘는 방법은 적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급무(急務)입니다. 그런데 본도(本道)의 육진(六鎭) 각 보(堡)의 군인들은 어리석고 의혹되며 게을러서 전연 <화포 방사법(放射法)을> 고려(顧慮)하지 않사오니,…”

○咸吉道監鍊官啓: “火炮放射之法, 最是禦賊急務. 今本道六鎭各堡軍人等因愚惑懶惰, 全不顧慮, …

세종실록에 많은 기사들을 보면 4군6진은 모두 함길도에 있었습니다.

6. 4군육진은 함길도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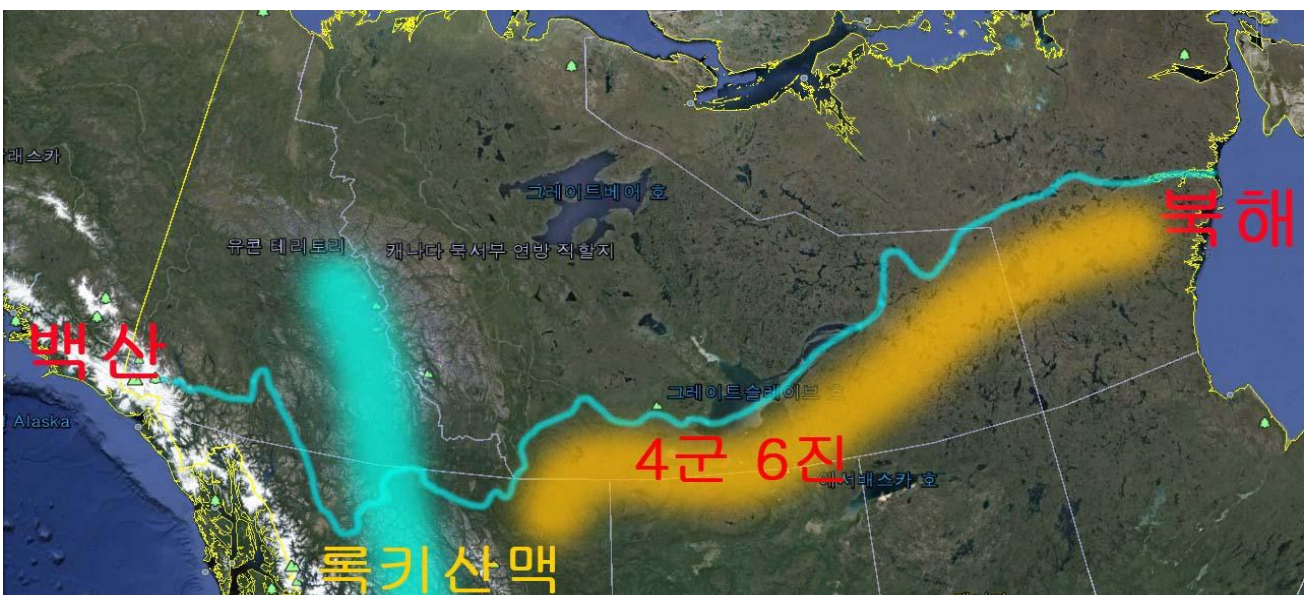
앞 글들에서 누누이 보았듯 동국조선이 있었던 한반도는 미대륙이며 조선초기 압록강과 두만강의 위치는 국경선의 개념이었으며 압록강은 명나라의 요동과의 경계이기에 국경의 문제가 적으나 두만강은 만주의 여진족들과의 문제가 항상 있었으며 그래서 남쪽지방의 백성들을 이주시키면서까지 4군6진을 설치했던 것이며 국사학계는 4군6진을 현재의 한반도인 조선반도지형에 맞게 나누어서 국사를 만든 것이겠습니다.



16세기의 고지도들을 통해 16세기의 지형을 복원하면 위의 모습이 나오며 세종대왕이 4군6진을 설치하시던 15세기 초반에도 위의 지형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종 45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7월 14일(정묘) 2번째기사

“본도(本道)는 서쪽으로 높은 산을 업고 동쪽으로 큰 바다를 임하여 있어 한 길로만 육진(六鎭)에 통할 수 있으므로, 전일 이시애(李施愛)가 난을 꾸밈을 때에 북도 절도사를 죽이고 한 쪽지를 급히 보내어 수령(守令)을 죄다 살해하였으나 아무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서쪽으로 높은 산은 록키산맥을 말하며 동쪽의 큰 바다는 허드슨만을 말하는 것으로 세종대왕이 설치하신 4군6진은 북미 록키산맥 동쪽과 허드슨만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현재의 세계사에서 총령(葱嶺)은 티벳 서쪽의 파미르 고원을 의미하나 조선왕조 숙종실록에는 총령(葱嶺)이 황해도 서북쪽 지역에 있었다고 되어져 있다.

총령(葱嶺)은 숙종시대에 황해도에 속한 지명으로 나오나 조선초기의 기록들에는 동국조선의 영토를 설명하며 "서쪽으로 총령과 사막이 삼만리나 된다."고 했으므로 총령은 황해도의 작은 지명이 아니라 한반도(미대륙) 북서의 고원지대를 의미하는 지명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총령(葱嶺)은 북미 북서의 해발 3000m~6000m의 고원지대를 의미한다.

세계사를 조작한 국가들은 세계사조작과 고지도조작을 통해 미대륙의 COREA의 역사와 지명들을 지워버리고 현중국에 COREA의 역사를 이식하려 하였고 그래서 총령과 티벳을 현중국지역에 이동시킨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사는 세종대왕이 한반도의 북쪽지역에 설치하신 4군6진중 4군은 압록강에 6진은 두만강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에 4군 6진은 모두 두만강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수많은 기사들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대한민국의 국사학자들이 4군의 위치를 두만강지역에서 압록강으로 조작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있는 조선반도에 만들어진 백두산과 압록강의 위치가 원래의 한반도인 미대륙과 다르므로 조선반도에 맞게 4군의 위치를 조작한 것이다.

4군 6진의 위치처럼 뻘히 보이는 모든 것들을 조작하고 교수요 국사학자라고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는 매 국사학자들은 당장 퇴진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매국사학을 교육이란 이름으로 주입하는 범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티벳과 총령은 대표적인 고원지대입니다. 원래의 북미의 총령과 티벳이 고원지대이기에 현재의 위치에 세계사조작에 맞게 고원들의 이름을 조작한 것입니다. 총령은 총령이 아니며 티벳은 티벳이 아닙니다. 왜 이곳에 이런 지명들을 만든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하면 동국조선 COREA의 바른 강역과 역사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대부분 아침부터 밤까지 한달 백여만원을 벌기 위해 노예처럼 일합니다.

우리는 수십년을 돈을 모으면 작은 아파트를 한채 사거나 COREA땅에서 캐낸 작은 다이아몬드 한조각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차를 수십만대 팔아서 외화를 벌면 COREA땅에서 자란 곡물들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철이 없다! 어른을 모른다! 역사를 모른다! 고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한반도가 어디인지 명성황후를 강간하고 태워 죽인 JAPON이 어느 나라 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배고파서 철천지 원수가 먹여주는 청산가리를 감사하게 먹었고 은인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나라인 COREA의 후손들이나 KOREA라는 메트릭스에 갇혀서 바짝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몰하고 있는 뿡꾸난 KOREA호에 타고 있으며 세월호의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만이 있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남겨진 아이들 또한 노예로 살다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역사를 알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역사는 지명을 통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암호문이며 지명의 조작은 메트릭스의 중심기둥이기에 전세계인들이 고지도조작을 알고 분개할 때 지구를 감싸고 있는 사악한 메트릭스는 깨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부터...